

온 가족이 함께 읽는



장애이해교육 신문



장계초등학교 초록반

역사 속에서 살펴보아요!

위대한 리더 '세종대왕'



훈민정음 창제, 해시계, 자격루 등 많은 분야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. 이런 눈부신 업적 뒤에는 여러 질병과 **시각장애**로 고생한 시간이 있었습니다. 세종대왕은 35세 무렵부터 후천적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었고, 이후에 장애인 백성의 삶을 더 면밀하게 살피셨습니다.

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정 한 명을 주어 봉양하도록 하고, 자립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생활비를 주는 등 장애를 가진 백성의 생활을 이해 **세심한 복지 정책**을 펼쳤습니다. 또 시각장애인 연주자 '관현맹인'에게 관직을 주고 처우를 개선하는 **관현인맹제도**를 국가적으로 지원했습니다. 장애인을 진정으로 위했던 세종대왕님의 애뜻한 마음을 여러분들도 다시금 새겨보는 건 어떨까요?

- 출처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-

훈맹정음 창안한 '박두성'



나라의 말과 글이 중국과 달라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. 일본어 점자를 사용하던 시각장애인들이 한글 점자를 쓰면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한 박두성. 모두 장애인을 이해하고 배려한 빛나는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장애 관련 잘못된 용어들

병어리 장갑 vs 손모아 장갑

'병어리'라는 말은 청각장애인, 언어장애인을 낮추부르는 말입니다! **손모아 장갑**이라는 예쁜 말을 사용해보아요^^

일반인 vs 정상인 vs 비장애인

장애인과 대비되는 말로 일반인, 정상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는 장애인은 정상이 아니라는 차별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. 따라서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겠죠?

수화배우기

수화배우기: 기초

1. 네! (Yes)

2. 아니요~ (No)

3. 괜찮아. (It's okay)

4. 싫어~ (I don't like it)

장애이해교육 신문 잘 보았나요?
장애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
지니는 장계초 어린이가 되기로
약속해요 ♥

-초록반 선생님-

